

### 강의계획서(KOCW)

<b>강좌명</b>	(한글) 생활 인문학			학점	2
	(영문) Human studies in Life				
<b>이수구분</b>	교양선택				
<b>교수정보</b>	성명	이득재	직위	교수	
	소속	대구가톨릭대학교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b>강의목표</b>	본 교과목은 인문사회과학 및 자연과학을 횡단하면서 기업과 사회가 필요로 하는 진정한 의미의 융합형 인재를 길러내고 인간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통해 인성과 교양이 넓고 깊어진 학생을 사회 속으로 진출하게 만드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b>개발형식</b>	동영상 촬영				
<b>평가방법</b>	퀴즈 50% 출석 20% 기말고사 30%				
<b>주 별 계 획(강의내용)</b>					
1주	사물 인터넷 시대에 인문학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2주	모리오카 마사히로의 무통문명론				
3주	우리는 우리가 보지 못한다는 것을 보지 못한다				
4주	인문사회계 도이 다카요시(土井隆義) 교수와 함께 생각하는 강남사건				
5주	양자역학으로 생각하는 불행의 허상 - 불행은 없다. 정해진 불행도 정해진 행복도 없다.				
6주	집 고양이와 함께 인문학 공부하기 하이데거는 이를 두고 베노멘하이트benommenheit 즉 마비라고 불렀고 이것을 동물성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했다				
7주	코와 입은 왜 튀어 나왔을까? 대중문화와 신체 바흐찐에게 있어서 그로테스크는 '구멍'과 '돌출'이라는 이미지를 특징으로 한다. 사람의 얼굴에서 코와 입이 돌출된 것은 그 자체로 그로테스크한 것이다				
8주	인간에게는 나를 보는 눈, 너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눈 세 개가 있으니 인간의 눈은 어떤 의미에서 물고기의 눈보다 낫다고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 눈은 마음의 눈일 뿐이다. 인간은 세 개의 마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세 개의 눈을 가지고 있다				
9주	<아서 왕 궁전의 코네티컷 양키>는 19세기 영국 사회의 야만과 무지, 19세기 미국 사회 특히 남부 지역에 만연한 중세 시대에 대한 향수를 통렬하게 비판하기 위해 씌어졌다				
10주	도교전력과 일본정부의 무책임한 사고 대응에 대해 칸트의 의무윤리는 우리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해준다				
11주	오늘날 불어 닳치고 있는 인문학 열풍이 과연 유리알 유희인지 의문을 품으며 헤세의 작품 <유리알 유희>를 읽는다				
12주	일본의 뇌 과학자인 요로 다케시는 마음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y = ax$ 라는 방정식을 사용한다. 여기서 $x$ 가 입력이고 $y$ 는 출력이며 $a$ 는 마음이라는 계수다				
13주	자본주의는 남자의 시간 도둑이고, 남자는 여자의 시간 도둑이다				
14주	호손은 재러미 리프킨보다 이미 160여 년 전에 물질계가 거대한 신경조직으로 변할 것이라고 예언한 바 있다				
15주	기말고사				